



한전 전북본부, 완주군에 고향사랑기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윤여일)가 완주군에 고향 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섰다. 한전 전북본부는 17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전북본부 직원 1,052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전북본부는 완주군을 비롯해 고창군, 정읍시 등 전북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억5,200만 원 규모의 고향 사랑기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북지역 직원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직원 320여명도 기부에 동참하며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뜻을 함께 모아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2026 영유아 교육기관 디지털 교실 운영 연수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최근 지원청 에듀테크 실과 영재교육실에서 관내 공·사립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 영유아 교육기관, 디지털 교실 운영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유보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현장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간 상호 협력과 공감 문화 확대를 위해,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디지털 활용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는 약 2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운영되며, 참가자는 신청 단계에서 희망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주요 과정은 캔 바로 완성하는 디자인 한 곳 차이와 디지털로 설계하는 스마트 교실 2개로 구성되며, 과정당 10명 내외로 나누어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수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 도구 활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교실 수업과 기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유아 교육기관 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부안농협, 계절근로자 대상 간식꾸러미 전달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지난 16일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간식꾸러미를 전달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 타국의 낯선 환경 속에서도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사기 진작을 격려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아영면 새마을부녀회, 밀반찬 나눔 봉사

남원시 아영면 맞춤형복지팀은 면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16일, 거동 불편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밀반찬 3종을 아영면 내 취약계층 26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1일 1가구 소통행동과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봉사역량 결집... 체계적 나눔 본격화

전북 새마을금고 대표봉사단 'MG따숨' 출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하재길)는 지난 16일 전북지역본부 교육관에서 '전북 새마을금고 대표봉사단 MG따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MG따숨 봉사단 위원장인 김성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를 비롯해 하재길 전북지역본부장, 황의봉 늘푸른새마을금고 이사장, 배성기 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삼순 서진주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G따숨은 그동안 전북지역 각 새마을금고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봉사활동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된 대표 봉사단이다. 봉사단은 앞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정화 활동, 복지 증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합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상생하는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진 위원장은 발족식 인사말을 통해 "MG따숨 봉사단은 그동안 쌓아온 봉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큰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재길 전북지역본부장은 "MG따숨 발족을 계기로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역맞춤형 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서비스 제공은 물론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오상근 기자



사단은 그동안 쌓아온 봉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큰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재길 전북지역본부장은 "MG따숨 발족을 계기로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역맞춤형 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서비스 제공은 물론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오상근 기자

군산 나운2동,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나서

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남귀우)는 17일 관내 저장강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장단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인 A씨(70대)는 집안에 방치된 쓰레기와 물건들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으며, 특히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번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에는 통장의 역할이 컸다. 통장은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던 중 대상 가구의 급격한 변화를 파악해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했으며, 이후 1년여 동안 지속적인 가정방문과 설득을 통해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날 나운2동 통장단과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집안 내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고 찌든 때를 제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새롭게 변화된 집을 본 A씨는 "몸이 성치 않아 집을 치울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준 통장님들과 동 직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귀우 나운2동장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웃을 돌봐주신 통장님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모아주신"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통장단 및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출중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제16회 전주시군공노조연맹 노사 한마음대회, 고창서 개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재선)이 주최하고 고창군 및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제16회 전주시군연맹노사한마음 대회가 최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북 8개 시·군 연맹(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임실, 고창)위원장을 비롯해 단체장, 조합원 및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노사 간 상생과 협력, 단결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축하공연, 한마음경기, 화합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노사가 함께 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상호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금 다짐했다. 이재선 전주시군연맹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노사 간의 벽을 허물고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지역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전북의 최일선에서 도민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시는 시군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한편, 고창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합원 간 우애를 다지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사한 마음을 전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한편, 고창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합원 간 우애를 다지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보건소, 어린이 흡연폐해예방 공연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운재)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3세 이상 원아 및 교사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어린이 흡연폐해예방 버블 매직'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흡연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해 큰 반응을 얻은 흡연예방 인형극에 이어, 아이들의 몰입도를 더욱 높이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버블 매직 공연으로 기획됐다. 또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마술과 담배 연기 대신 맑고 깨끗한 비눗방울 퍼포먼스를 결합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담배의 유해성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아·아동기 조기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이 가족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릴으로써, 아이들이 가정 내 든든한 금연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계농협, 무더위쉼터 냉방기 무상 세척 진행

장계농협(조합장 박정용)은 지난 16일, 농협파트너스(전북지사장 고영훈)와 협력하여 관내(장계, 계남, 계북, 천천)의 15곳의 무더위쉼터(경로당)를 선정하여 무상 에어컨 세척을 진행했다. 이번 상생 행보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쉼터를 찾는 고령층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해 추진했으며, 현장에서 만난 한 마을 주민은 "날이 더워지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었는데, 농협에서 에어컨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니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정용 조합장은 "농협의 근간은 언제나 지역주민과 농업인"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계=고관호 기자



전주파티마신협, 취약계층 아동가정 주거환경 개선

전주파티마신협(이사장 양춘제)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파티마신협 임직원 11명은 지난 16일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아동가정을 찾아 '행복한집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복한집 프로젝트'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관하고 초록우산 전주한지협동조합이 협력하는 전국 단위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역 내 주거 취약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 청소 등을 지원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습도 조절과 유해물질 저감 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전주한지 벽지와 장판을 활용해 시공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자연소재인 전주한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갖고 있어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순창 '농심천심 텃밭 정원' 체험장 개장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군지부 주차장 화단을 활용해,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하는 '농심천심 텃밭정원 체험장'을 조성하고, 17일 순창 관내 농업조합장, 고창주부모임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텃밭 정원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과 같다'는 의미를 담아 농업·농촌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하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주차장 유휴공간을 정비하여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오이, 옥수수, 감자, 가지, 조물박, 토란 등 30여 종의 채소를 재배하고, 폐화분 등을 재활용하여 해바라기, 백일홍, 장미, 붓꽃, 집시꽃, 코스모스, 바늘꽃 등 30여종 꽃을 키우고 있다. 군지부는 텃밭 정원을 고재 등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시 체험학습장으로 개방할 계획이며, 고향주부모임 회원들과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활용하여 반찬 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산경찰, 맥주축제 출연진들과 범죄예방 홍보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26 군산 수제맥주&블루투스 페스티벌'에서 출연 가수들과 함께 텔레이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축제를 활용해 각종 사회문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출연진인 가수 강산에는 '노쇼서기', 김종서는 '바약', 김경호는 '스트로킹 범죄' 예방 문구가 적힌 홍보 팸플릿을 들고 범죄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며 힘을 보탤다. 홍보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돼 범죄예방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김제노인복지센터, 익명 후원금으로 어르신 지원

김제시는 김제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남주)가 최근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취약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후원금을 활용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 어르신들에게 냉방용품 및 여름철 건강관리 물품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대연전 전리일보 정치부장씨 장인상는 별세: 17일 오후, 빈소: 전주고려병원 장례식장 천실, 발인: 19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전주 승화원